

대부도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신성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75
----------	------

발의년월일 : 2015. 07. 13.

발 의 자 : 신성철 의원
외 20인

1. 주 문

- “붙임 건의(안) 과 같음”

2. 제안이유

-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관한 조례 제2조 특수지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 구분에서 대부도 5개학교를 벽지지역에서 제외한 개정조례가 9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의 벽지지역에서도 대부도가 제외될 예정에 있음.
- 이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이 중지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의 가산점 부여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대부도 근무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키고, 수당과 가산점이라는 유인책이 상실되어 중견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사태가 예견되어 있음.
- 또한, 도서·벽지에 해당하는 대부고등학교의 경우, 3급지 수업료인 연 669,600원에서 1급지 수업료인 연1,371,600원으로 수업료가 2배이상 인상되고, 대학 입학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실제 농어촌 환경의 대부도 주민들과 학생들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됨.

- 대부도는 안산도심에서 40k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교통마비지역인 공단을 거쳐 출·퇴근해야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등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역이며, 대부도의 95%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으로 실질적 농어촌임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 대부도 5개학교 교사에 대한 격무부서 가점 부여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대부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조정을 촉구하고, 교육부에 농어촌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변경 검토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사항임.

3. 관계법령

가.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대상인 경기도 교육감 관할 기관과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4056호, 2010.5.12>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부도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대부도는 행정구역상 안산시 관할의 동 지역이면서도 시에서 40km이상 떨어져있는 지리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문화적·교육적 환경은 물론, 거주 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대부도의 95%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인 농어촌입니다.

현재, 대부도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은 매일 교통정체가 심한 반월·시화공단이나 화성시를 거쳐 출·퇴근 전쟁을 해야하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등을 감안했을 경우, 일반지역과는 차별적 보상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도를 제외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에 따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의 벽지 지역에서도 대부도가 제외될 예정임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이 중지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의 가산점 부여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대부도 근무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수당과 가산점이라는 유인책이 상실되어 중견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사태가 예견되어 있으며,

안산 공단지역은 대부도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평점점을 받고 있는데, 공단 가산점과 벽지지역의 가산점 차이가 좁혀지고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교원은 공단지역에서 가산점을 취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도지역에 대한 교원들의 선호도가 대폭 하락하고있는 실정 또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대부고등학교 수업료가 현재 도서·벽지에 해당하는 3급지 연 669,600원에서 1급지 연 1,371,6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되고, 대학 입학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기존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는 대부도 학생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도 아이들이 지역적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대부도의 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원을 위해 대부도의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을 감안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대부도의 열악한 지리적, 환경적, 교육적 환경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부도 5개학교 교사에 대한 격무부서 가점 부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경기도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별표’의 비고4호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대부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면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교육부에서는 대부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 정의를 반영하여 농어촌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변경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5. 7.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